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2050 탄소중립' 민관협력기구 출범

'탄소배출 제로' 선언  
전주시, 환경단체 중심  
하천·녹지·교육 등  
분야별 실행기구 구성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생태도시 전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전주시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과 함께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를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원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창환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 상임대표, 최현규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 사무처장, 정병문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재원 전주시에너지전환시민포럼 위원장 박정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하갑주 생태교통협의회 위원장, 김중표 전주시도심교육공동체 대표, 이정덕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는 ▲하천-전주생태하천협의회 ▲녹지-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교육-전주시도심교육공동체 ▲에너지-에너지전환시민포럼 ▲교통-생태교통협의회 ▲도시계획-도시계획협의회 등 6개 분야별 실행기구로 구성됐다.

이 기구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 민간 대표 등을 공동의장으로 한 정책협의회와 6개 분야별 사무국장 등으로 꾸려진 실행위원회가 운영된다. 사무국 역할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맡기로 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날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 저감을 위한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과 녹색산업 전환 ▲천만그루 정원도시 확대 조성 ▲폐기물 저감 및 녹색자원 전환 ▲지역 먹거리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 지원 ▲시민 환경교육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분야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미래세대 대표로 나선 전주시

곡초등학교 5학년 학생 3명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시민과 미래세대 대표들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탄소중립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선언문을 낭독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자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분야별 실행기구를 통해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동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행위원회는 분야별 업무 협력을 돕기 위해 연 4회에 걸쳐 운영되는 한편 정책협의회는 주요 생태도시 정책·사업의 최종적 협의를 이끌기 위해 연 2회 가동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실현은 우리 아이들의 숨을 쉬게 하고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엄중한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면서 "탄소중립 이행 조력을 제정하고 탄소인자 예산제를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실행전략을 세우고 민관협력기구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순조'

전북도, 전국 지자체 최초 유치 성공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 9월 완료 후 착공 예정  
도내 연구기관 연계 농생명 연구 협업도 가능  
문 대통령 공약 '동물케어 클러스터' 기반 갖출 듯

전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 구축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평가센터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조감도 (사진=전북도청 제공)

지난 2008년의 사스나 2012년의 메르스, 최근의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위협했던 신종 바이러스는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의 안전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 허가 및 수출을 위한 평가시험을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만 시행하도록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을 개정했다. 이러한 평가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센터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해 지난해 4월 익산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익산에 위치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부지 일부에 연면적 9,300㎡의 2층 규모로 들어설 평가센터의 운영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이 맡게 될 예정이다. 오는 9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말에 평가센터 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센터의 구축이 단지 시험기관 1동의 건립에만

그치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육성까지 내심 기대하고 있다.

향후, 평가센터가 구축되면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백신 연구개발과 동물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뢰하는 효능과 안전성 평가시험이 활발하게 이뤄져, 도내의 농생명 연구 관련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된다.

도내에는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센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원광대 의대, 전북대 수의대 안전성평가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농축산용 미생물 육종화지원센터 등 경쟁한 연구기관이 이미 자리잡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평가센터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신성장산업에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도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발생시 즉시 진료받아야"

이 16.8%에 이르는 감염병이다. 도내에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가 활동하는 계절에 농작업, 산나물 채취, 제조작업, 캠핑, 산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해 진드기에 잘 물리는 부위(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

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높을 **고**고창

## 고창군, 「소농직불금 대상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

**지원 내용**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지급 방식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이용 기간 :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1. 4. 5. (월) ~ '21. 4. 30. (금)  
방문 신청 : 경작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고창군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